

평화활동가 윤옥환씨 자전거 타고 세계일주

유엔 192개 회원국 돌아

자전거 여행가 겸 평화활동가인 윤옥환(50) 씨가 10여 년에 걸친 자전거 세계 일주 대장정을 끝내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

윤 씨는 2001년 7월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세계 각국을 누비기 시작했다. 여정으로 잡은 목표는 유엔에 가입한 전체 회원국.



1차 때는 중국·러시아, 2차 때는 캐나다·호주·일본 등을 누웠고 3차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을 주로 돌았다.

2007년 1월 재개된 3차 투어는 대만에서 출발해 태평양의 섬나라 20여 개국을 거쳐 남미와 북미 국가를 훑는 여정이었다.

윤 씨는 마지막 여정의 종착점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찍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윤 씨는 인터뷰에서 “마침내 북한을 제외한 192개 유엔 회원국을 모두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그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등 우려곡절이 많았다.

초기에 찾은 러시아에서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해 중도 귀국해야 했고, 앙골라의 수리남 등에서는 강도를 만나 큰 일이 날 뻔한 적도 있었다.

수단에서는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다 가 풀려나기도 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다”며 “수없이 포기할 뻔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끈기와 도전정신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전거를 7차례 바꿨다. 하루 평균 200km 이상을 달려 총 주행거리로는 30만km를 훌쩍 넘겼다. 지구를 7번 돌고도 남을 만큼 페달을 밟은 것이다. /연합뉴스

농협 ‘실버-클린뱅크’ 인증 전 봉식 대촌농협 조합장



“부실채권 없고 재무구조 건전... 조합원과 함께 이룬 것”

“앞으로도 더욱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농산물 제값받기에 앞장서 조합원과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든든한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농협중앙회 주관의 ‘상호금융 클린뱅크(clean bank) 평가’에서 ‘실버-클린뱅크’ 인증을 받은 전봉식(64) 광주 남구 대촌농협 조합장은 “이번 평가는 부실채권이 없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농협임을 인증받은 것”이라며 “취임 이후 소신있게 추진한 ‘정도경영’·‘투명경영’ 방침과 함께 어려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발로 땀 흘린 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전국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대출금 연체비율 ▲고정이자 비율 ▲신규 연체비율 ▲예금·대출 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중심으로 ‘상호금융 클린뱅크’ 평가를 실시, 자산 건전성이 우수

한 농·축협을 탐, 골드, 실버 ‘클린뱅크’로 선정해 인증과 표창을 주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대촌농협은 예대비율(기준 50% 이상) 82.35%를 기록하는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조합장은 지난 1970년 경찰에 투신해 동부경찰서 강력반장 등을 지낸 데 이어 정치에 입문해 남구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8년간 ‘풀뿌리 시민정치’를 실천했고 또다시 번신해 휴을 일구는 농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전 조합장은 지난 2010년 3월 취임 이후 대촌 일대에서 생산된 시설회에 작물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 출하물량의 15~20%를 차지하면서 정작 재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남다른 탄방을 흘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년 후인 지난해 3월 농협중앙

회로부터 ‘2010년도 우수농산물 출하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 조합장은 “농협의 존립이유는 농업인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권익보호 등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크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농촌농협 위상에 맞춰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유통사업을 활성화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학교급식 납품에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촌농협은 지역인구 7000여명 가운데 2120여명이 조합원이다. 특히 대촌지역은 풋고추를 비롯해 피망·애호박·토마토·부추 등을 생산,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 등지에 출하해 연간 5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 취임

광주일보사는 1일 오전 임직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16층에서 사장 임·취임식을 가졌다. 김여송 사장은 취임사에서 “전 사원이 화합해 60년을 맞은 광주일보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임하는 유재철 전 사장에게는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공로패가 전달됐다. /나명주기자 mjna@

구례 김홍석·영암 윤재섭씨 ‘한우 공동브랜드 명인’ 선정



구례 김홍석(51·모래알농장)씨와 영암 윤재섭(63·시목농장)씨가 ‘2011 한우 공동브랜드 명인상’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전남 서남부권의 ‘녹색한우’와 동부권 ‘지리산 순한우’ 등 전국 12개 명품 한우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한우 농가 중 모범이 되는 농가를 선정해 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양제철소 다문화센터·어린이집에 승합차 선물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준식)는 최근 광양시 다문화센터와 희망찬 특수어린이집에 업무용 차량인 승합차 2대를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곡성군 ‘희망! 2012’ 기념식수 표지석 제막



곡성군은 최근 관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희망! 2012’ 기념식수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kwangju.co.kr

강진신협 정기총회서 장학금 전달



김승식 강진신협 이사장은 최근 강진신협 정기총회에서 강진 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여수해경 경비함 275함 지구 15바퀴 돌고 퇴역



30년 동안 지구둘레의 15바퀴 넘는 바닷길을 달리며 해상치안 임무를 수행한 해경 경비함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250t급 중형 경비함인 275함이

지난달 31일 마지막 해상경비 임무를 마치고 퇴역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운항정지 명령을 받은 이 경비함은 지난 1982년 9월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주)대원조선공사에서 건조돼 포항해경에 배치된 후 2008년 여수해경으로 편제 발령을 받아 그동안 전남 동부해상 ‘바다지킴이’ 구실을 해 왔다.

총 길이 47.75m, 너비 7.1m로 취역 이후 총 8만여 출동시간 동안 지구 둘레의 15바퀴 넘는 60여 만km의 거친 바닷길을 운항하며 조난선 구조 활동과 응급환자 후송, 밀수·밀입국 단속 등 각종 해상치안임무를 수행해 왔다.

20대 함장이자 마지막 함장인 소병수(57) 경감은 “지난 30년 동안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승조원들의 피란 어린 노력 덕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퇴역한 275함을 새로 대체할 500톤급 최신형 고속 경비함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만행부터 막내까지...한 조선소에 다섯형제 근무



한 조선소에서 다섯 형제가 근무해 화제다.

주인공들은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군)에 근무중인 정홍규(50), 홍교(45), 홍명(43), 홍영(40), 홍운(32)씨. 특히 막내인 홍운씨는 최근 생산기술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됐다.

진도가 고향인 이들 형제 가운데 제일 먼저 조선소 일을 시작한 사람은 맏형 홍규씨. 1987년부터 25년간 조선 도장업무에 종사한 베테랑이다.

그는 울산에서 근무하다 1995년 영암에 동지를 둔 현대삼호중공업이 본격적인 생산작업을 착수하던 때 고향을 찾아 경력사원으로 입사했다. 넷째 홍영씨가 1996년, 셋째 홍명 2000년, 차남 홍교 2004년에 입사했다. 이들 형제의 조선소 경력을 모두 합치면 62년이다. 막 입사한 홍운씨는 1일 “언제나 마음속으로 잊지 못하는 형들이 있어 든든하다”면서 “형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ish@kwangju.co.kr

인사

- ◆진도군
 - ◇4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이양래
 - ◇6급 승진 ▲조도면 담양요원 김진기 ▲ 김상석 ▲농업지원과 하용진 ▲진도읍 담양요원 정진환 ▲수산지원과 이병윤
- ◆승진 의결 ▲군내면장 직무대리 문정배 ▲지산면장 ▲홍성진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소중
- ◇공로연수 ▲박치준 ▲김승태 ▲김병선
- ◇5급 진보 ▲지역개발과장 박종은 ▲행정과 기청우 ▲주민복지과장 차홍순 ▲민원봉사과장 김봉선 ▲녹색산업과장 박종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사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하준성) 월례회=6일(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중친회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 및 신년하례=2일(목) 오후 6시 30분 화랑궁회관 062-224-1800. ▲흥덕(홍성)장세 중친회(회장 장웅택) 정기이사회 및 신년하례=4일(토) 오전 11시 중친회 사무실(남구 월산5동 1048-102) 062-526-6699.

알림

▲전의경회(경우회 특별회)=전

385-0422.

모집

- ▲제주 소암 필법수강생=초대작가 이관주. 문운주 정형외과 4층 010-2982-5124.
- ▲2012학년도 광주노인지도자대학 26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없는 65세 이상 남녀 선착순 60명 모집(무료). 29일(수)까지 입학원서·증명사진·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사단법인 대안노인회 광주지연합회 062-652-7374.
- ▲퀵즈공예전문학원=각종 도자기, 접시, 공기그릇, 대접, 핸드페인팅, 포셀린페인팅, 세라미페인팅, 포크아트, 체험학습, 취미반, 창업반, 전문가 과정 수시모집. 062-251-5559, 010-2665-6440.
- ▲수지침 전문봉사단 수강생=모집기간은 2월 16일(목)까지, 교육이수후 전문봉사단에서 활동 가능 자(15명) 선착순 모집. 동구자원봉사센터(동구청 보건소 2층) 062-228-1365.
- ▲여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

가자=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조기축구 회원=운동으로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하실분 모집. 문화초등학교 오전 6시~7시 011-641-0741(손철준)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지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축령산 지킴이 회원=장성 축령산을 공유하고 편백의 숲을 지키실 40~50대 회원 011-646-357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부음** ▲백학기씨 별세 광원·상현씨 부친상=발인 3일(금)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20-6983. ▲김영실씨 별세 성훈·지은·윤정·윤선·윤희씨 부친상=발인 3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2. ▲김단임씨 별세 박찬석·찬익·정애·정자씨 모친상=발인 2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점순씨 별세 영영·영숙·영선·영란·금순·숙희·금란씨 모친상=발인 2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임영월씨 별세 김홍진·종연·희영씨 모친상=발인 2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박경환 남(男/69세) 子/子婦: 박현우 / 정경미정우 / 김현주 女/婿: 박영주 / 최주연 • 호실:101호 • 장지:영락공원	故 이경식 남(男/73세) 子/子婦: 이승호 / 서명자 명호 / 오순애 女/婿: 홍진 / 한미정 • 호실:102호 • 장지:영락공원
故 정원순 남(女/71세) 子/子婦: 황영원 / 윤혜숙정원 / 이상자 女/婿: 양수 / 천은림 • 호실:41호 • 장지:화순남면	故 정명자 남(女/73세) 子/子婦: 조영기 / 양영숙 女/婿: 조진희 / 박인수 정희 / 김 호 • 호실:402호 • 장지:영락공원

마음까지 편안한 **추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